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동향

기업 친화적 정보보호 사업 추진

: 맞춤형 정보보호, 중소기업지원 강화 골자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KISA)이 규제 중심의 정보보호 사업에서 벗어나 기업 친화적인 정보보호 사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업 계획은 KISA가 중장기 사업전략의 2년차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발표한 '기업 친화적 정보보호 추진방향'의 내용으로, 여기에는 '맞춤형 정보보호서비스(Security by Customization)', '중소기업 지원 강화(Security for SME)', '설계 단계부터의 보안진단 서비스 강화(Security from Design)' 등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맞춤형 정보보호를 위해 KISA가 맞춤형 정보보호 관리체계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HIPPA 및 SOX 등 국제 IT 환경 변화에 따른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위해 콘텐츠를 개발해 제공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정보보호 대응능력이 취약한 IT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컨설팅, 교육, 취약점 점검지원 등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 물류, 교통 등 국가사회 시스템에 사용되는 신규 IT 서비스를 대상으로 보안 사전진단 서비스를 강화해 설계 단계부터 정보보호 요소가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 즉, 요구사항 분석, 디자인, 코딩, 테스트 등 각 단계별로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기법 및 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취약점 분석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가인증 기업에 실효성 있는 교육 제공

: KISA 평가제출물 교육 진행

KISA가 피평가 업체들로부터 보안성 평가신청 제출물 작성이 어렵다는 의견을 수렴해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정보보호 제품 평가제출물 작성'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내에 적용되고 있는 국제공통평가기준(CC:Common Criteria)이 지난 4월부터 버전 2에서 버전 3으로 변경·적용됨에 따라, 피평가 업체가 평가신청 시 제출하는 제출물의 작성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됐다.

특히,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은 이번 과정을 통해 평가 기준의 요구사항을 학습하는 것은 물론, 모의 제출물 작성 실습을 통해 작성법을 실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한편, 5일간 진행됐던 이번 교육에는 정보보호 업체 관계자를 비롯해 일반 기업 연구소 등에서 총 35명이 참가했다.



정보보호 제품 평가제출물 교육

방송통신 통합 법제화 추진된다

: '기본법+개별법' 형태로 진행될 듯

방송통신의 융합 촉진 및 발전을 위한 법안이 새롭게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방송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화 촉진기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분산돼 있던 방송통신의 기본적 사항들을 통합·재구성한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의 제정 절차가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통합법은 디지털 융합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방통위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체계가 엄격히 구분된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방송과 통신을 모두 아우르는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등이 주요 골자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통합법에서는 방송·통신 관련 법령들을 정비해 단순히 법령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닌, 방송과 통신으로 구분된 규제체계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업자·이용자의 권리·의무 등에 중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방송통신 관련 법률은 향후 기본법으로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과 개별법으로 '방송통신사업법' 제정으로 정리되는 한편, 그 이외의 개별법은 오는 2010년 이후 환경변화를 고려해 법률 존속되거나 기본법이나 사업법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팸규제 대폭 강화

: 불법 스팸에 대한 과금제한, 악성 스팸머 재가입 금지 등

방통위가 날로 지능화되는 불법스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불법 스팸방지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확정하고 이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과금서비스 제한, 계약 해지후 재가입 금지를 위한 신상정보 보관, 문자메시지(SMS) 일일 발송량 제한, 기존거래관계 인정기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지난 2006년 3월 불법 스팸방지 가이드라인의 배포와 2007년 12월부터 운영된 음성 스팸 탐지 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스팸이 대폭 감소됐다고 설명한 방통위 관계자는 "개정된 불법 스팸방지 가이드라인을 통신사, SMS 발송대행사, 포털사, 협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이용약관 등에 반영하도록 해 불법 스팸 감축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KISA 직원들의 에너지 절약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사진은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해 일회용 컵 대신 개인컵을 사용하는 연구원들의 모습

이달의 사진 한 컷



CEO의 한 달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8월 황중연 원장은 KISA가 모범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힘을 쏟았다. 노조원들과 함께한 '노사화합을 위한 한마음 전진대회',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현의지를 담은 '사회공헌헌장 선포식' 등이 그 대표적 것. 향후 KISA가 정보보호 리더 역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롤 모델로 자리매김해 보길 기대해 본다.



노사(勞使)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사화합을 위한 한마음 전진대회

지난 8월 28일 황중연 원장과 박순태 노조위원장 등 KISA 임직원 및 노동조합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화합을 위한 양재천 행진대회가 마련됐다. 서로 간의 벽을 허물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이번 전진대회를 통해 노사가 더욱 굳건한 신뢰를 쌓았다.



사회공헌헌장 선포식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현 의지 담겨

지난달 28일 노사화합을 위한 전진대회에 앞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실현을 다짐하는 사회공헌헌장 선포식이 거행됐다. 헌장에는 사회공헌 활동을 기관경영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임직원들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이동통신 3사와 업무협약

유무선 인터넷 이용자 보호 위한 계기 마련

한편, 황 원장은 지난 2일 서울파이낸스센터 21층에서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와 사이버 침해사고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휴대전화를 통한 보안공지, 이동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공동대응, 이동통신 가입자 개인정보보호, 공동 캠페인을 통한 가입자 보안 인식제고.

이와 관련해 황 원장은 무선 인터넷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휴대폰을 이용한 무선 인터넷 이용자 보호 서비스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계기로 4,500만 가입자를 보유한 이통사와 공동으로 유무선 인터넷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